

# “가족과 함께 6·25피난길 걸으며 통일 기원”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끄는 리어카에 몸을 싣고 피난길에 떠났던 우리 남매들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다 됐네요. 그 때 피난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면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고 싶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피난길을 떠났던 한 가족이 한국전쟁 60년을 기념해 피난길을 다시 걷는 행사를 마련해 화제다.

이들은 김태호(67) 광주대 명예교수(행정학) 가족, 지난 10일 서울에서 출발해 수원, 천안, 광주, 논산을 거쳐 고창군 선운사까지 약 300km를 걷는다. 60년 전 전쟁 당시 피난을 떠났던 바로 그 길이다.

## 서울~고창 300km 도보여행

지난 1950년 8월30일 서울 삼광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김 교수와 가족, 김 교수의 숙모 등 7명은 어수선한 시국을 살피다가 뒤늦게 서울을 떠났다. 고창인 전북 고창에 가기 위해 출발했던 당시 손수레를 끌고 18일만인 9월16일 도착했다.

“피난 도중 다리를 다쳐 아버지가 끄는 손수레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데 피아발에 많은 짐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난의 피난길을 걸었던 부모님의 고통이 어땠는지

## 한국전쟁 60년 기념 피난길 다시걷기 김태호 광주대 명예교수



6·25 전쟁 당시 부모와 함께 걸었던 피난길을 따라 도보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있다. 김태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교수와 가족들은 지난 10일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엔 9월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오는 24일 도착 예정으로 한식 절기에 맞춰 고향에서 성묘 행사도 열 계획이다. 이 행사는 김 교수가 2년 전 가족행사에서 건의했고 흔쾌히 받아들인 가족들은 지난해 사전

답사도 다녀왔다.

하루에 걷는 거리와 이동경로, 숙박예정지, 도로상황 등을 확인한 후 소요경비와 담당자도 정했다. 10여명의 가족들이 15일간 떠나다 보니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600여만원 경비는 가족들이 추렴했다. 손수레는 9인승 승합차로 바뀌었다. 당시엔 죽을 먹거나 굶었지만 이번엔 지역의 별미도 맛보고 편안한 숙소도 미리 잡아 놨다.

## 한식 절기 맞춰 고향 성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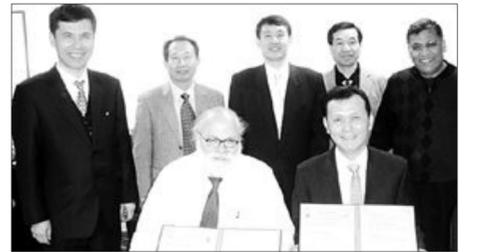
이번 답사길에는 김 교수와 아내, 동생 가족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약 300km의 대장정이니 만큼 김 교수는 지난해부터 하루에 10km 이상 걸으면서 준비했다. 승합차는 짐을 싣기만 하고 대부분 도보로 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체신부에서 근무한 후 지난 1984년 광주대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정년퇴임 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두 남동생도 고위공직자로 일했다.

“전쟁 이후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통일만 안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소원이 통일인 만큼 통일을 기원하면서 60년 전의 피난길을 가족과 힘을 합쳐 걸어보겠습니다.”

광주일보 기자 kps@kwangju.co.kr

##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캐나다 대학 협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앞줄 오른쪽)은 최근 치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문 치과대학으로 알려진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치과대학(학장 슬러·왼쪽)을 방문, 상호 학술교류 협정을 가졌다. <전남대 제공>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GS 칼텍스 협약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신선호·가운데)와 GS 칼텍스재단(상임이사 김기태, 전남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신주우)는 최근 센터에서 ‘미디어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디지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 곡성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단 직무 교육



곡성시니어클럽(관장 김년두·전남과학대학교수)은 최근 전남과학대학교 승진 더 큰생각실에서 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사업단 소양·직무교육을 가졌다. <곡성시니어클럽 제공>

## 동신대 체육관 개관식 기념 체육대회



동신대학교(총장 정기언)는 최근 체육관 개관식을 갖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관은 핸드볼, 농구, 배구 등의 국제 경기가 가능하고 1천300여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동신대 제공>

# “F1 성공위해 섬세함은 필수요”

## 황별이·김주연 F1조직위 신입 여성 사무관

황별이(여·30), 김주연(여·29)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관의 요점 퇴근 시간은 밤 10시가 훌쩍 넘는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처음 근무하면서 생소한 F1 대회에 대해 배우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대회 개최가 다가오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쟁쟁해질 일도 많아졌다.

황 사무관은 최근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활용,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영암 개최 소식을 알리고 이용자들이 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동영상 등 마케팅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김 사무관도 영암에서 열리는 대회에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매달리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 모터스포츠의 꽃인 ‘F1 그랑프리’대회의 성공 개최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일할 맛’이 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4개월간의 행정안전부 근무를



F1대회 조직위원회에 피견 근무하고 있는 황별이(오른쪽), 김주연(왼쪽) 사무관.

거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이다. 지난달 16일 첫 발령을 받은 뒤 한 달도 안됐지만 여성들만의 세심함과 꼼꼼함, 갖 공적에 들어 온 ‘심신한 체력과 두뇌’로 F1 대회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황 사무관은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지역을 구분해 모집하는 행사에서 전남 지역을 선택할 정도로 전남 근무를 희망해 왔고, 김 사무관도 여수에서 초·중·고를 나와 누구보다 전남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황 사무관은 “F1 대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2천명이 넘는다”면서 “이들과 온라인 접촉을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F1 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붐을 일으킬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도 “F1 대회에 일본 국적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데, 매니아층도 두터운 일본을 주 타깃으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객들이 대회 기간 중 영암을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라며 “경기 접착에도 불구하고, 영암 대회가 국내에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힐 수 있도록 알찬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난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F1 대회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중국 대회를 지켜보고 영암 대회의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연아 ‘한국 방문의 해’ 환대 캠페인 이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가 ‘환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김 선수는 이 캠페인을 통해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언어는 달라도 밝은 미소로 따뜻한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캠페인은 13일부터 KBS, MBC, SBS, TBS 라디오로 방송된다.

노영우 본부장은 “외래관광객 실례조사 결과 한국여행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1위가 언어소통 문제로 나타났다”며 “김연아 선수의 목소리로 전달돼 이번 캠페인의 취지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 호남대 조리학부 이명희씨 광주 기능경기 김치 금상

호남대 조리영양학부 조리과학전공(주임교수 이선호) 2학년 이명희(52)씨가 “2010년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김치담그기 부문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 신임 동신대학원장 김용익 교수 임명

김용익 동신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신임 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으로, 사회개발대학원장과 교육대학원장을 겸하게 된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환축

▲최 흥(신화종합건설 회장)·문영숙씨 차남 성준군 주성희씨 막내 박연미양=17일(토) 오후 2시30분 삼부지구 예벌부선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이승진(이화플리텍 대표이사)·김성애씨 장남 동훈군 오이철·장용임씨 막내 주희양=17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유병길·이순덕씨 차남 재섭군 연학렬·조미희씨 장녀 은정양=17일(토) 오후 1시 화이트하우스 1층(특그랜드홀)

▲홍석태(전남도 건설발전재장)·최향남씨 삼남 영균(남양유업)군 조문현(공군 제1전투비행단)·김명희씨 장녀 은희(롯데카드)양=17일(토) 오전 11시10분 광주 삼부지구 예벌부선 웨딩홀 1층(세이지홀)

▲김덕순씨 차남 김성훈군 정춘식·김성자씨 삼녀 명화양=18일(일) 오후 1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박동근씨 차남 지성군 김길환(전남대학 대표)·추공심씨 장녀 하나양=18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3층(컨벤션홀)

## 동창·동문회

▲광주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정기총회=13일(화) 오후 7시 학내 체육관.

▲담양고서초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회장 류진창)=18일(일) 오전 10시 고서초등학교 운동장. 011-604-0292.

▲유은학원총동문회(회장 손형섭) 2010유은 한마음대축제=18일(일) 오전 10시 진월동 동성고 운동장. 062-361-2680.

## 일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 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부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형외과와 베네슈. 062-266-6657.

## 모집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금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발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메테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집=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랜선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심. 061-371-8090.

## 부음

▲윤이순씨 별세 박우선(광주북부경찰서)·우홍(LG이노텍)·우기(광주드림 경영본부장)·경단·경숙·경화·미경씨 모친상=발인 14일(수) 광주 그린장례식장 207호. 062-250-4455.

▲김화성씨 별세 정희(광주인성고)·기형·정례·정재·정순·귀화·정복씨 부친상=발인 14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전병주(한국시멘트 대표이사)씨 별세 송조·동국씨 부친상=발인 13일(화)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062-220-5049.

▲민사기씨 별세 영동(조선대병원 부원장)·정식(동신대학교)·정희씨 부친상=발인 1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2-231-8902.

▲주정민씨 별세 준기(전 장흥고교장)·재식·재현(영등포구 약사회장)·재필(광주시 교육청)·재수(전남여상고 교사)·재경(장성 서삼우

체죽장)·경숙씨 부친상=발인 1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한상(전 전남도 농촌진흥원장)씨 별세 윤동(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진동(전 한나라당 당원협의 회 위원장)·경동(미국 씨타은행 부사장)·경하(한국 씨타은행 행원)씨 부친상 이은경(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김희연(LG 디스플레이 부장)씨 시부상=발인 13일(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02-2258-5953.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박예임 (여/59세)

오제 아석범/임영진 위안/정영희 이명희/조향경

호실	총의 101호
발인	04월 13일
장지	명림공원

故 조비연 (여/101세)

주/부	김정철, 김승수 / 김근영
오제	김희라, 오영수, 김명자 / 여백현
장지	이명지 / 비도순

호실 총의 401호

발인	04월 13일
장지	명림공원 2호실

심기교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

기입문의 1688-3740

현대종합상조 권석국 대표이사